현불 논단

사찰 미술관, 문화포교 아이템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제주 중광미술관 건립 본격화
오는 2025년 건립 완료 예정

미술관 · 박물관, 문화의 척도
문화 · 예술의 중심 곧 '미술'

고승 · 불자 예술가 전시 전문
사찰들 미술관 건립불사 통해
지역 문화의 선진화 기지돼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8일 '중광제주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에 제주 저지문화예술마을에 건립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이호재 가나아트센타 대표가 중광 스님 작품 432점을 수집한 것을 스님의 고향인 제주도에 기증해 성사됐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우리 곁에 함께 했던 중광 스님의 미술작품이 그런 것 같다.

중광의 예술세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람은 미국인 버클리대학교 랭카스터 교수이다. 그가 통도사 초대박물관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적에 처음 만났다. 랭카스터 교수는 중광의 방에 걸린 수십 점의 달마도를 보고는 '한국의 피카소'라고 경탄했다.

선(禪)은 정적인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시문학, 서예, 그림 등 예술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추사 김정희의 예술세계가 그렇다. 중광미술관의 건립 소식을 접하면서 고승, 불자 예술가들의 훌륭한 선화나 서예작품, 도자기를 분야별로 수집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가 경제, 사회, 종교 등 사회 발전과 방향을 학문적 이론으로 밑받침한다.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고, 예술의 중심은 미술이다. 요즘 여행은 테마 문화 기행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시다. 미술관이 수십 개이고, 종류도 많아 박물관의 종합도시라 할 만하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볼거리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분산 문화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의 사찰이 중심이 되어 지방문화의 시대를 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럽여행은 각국의 중세시대 건축물인 성당과 미술관, 박물관 견학이 주류를 이룬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미술품에 중점을 두었고, 유럽의 근대적 박물관 또한 대부분 미술관 중심이다. 르네상스시대 예술품과 근현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수덕사 입구에 있는 선미술관은 우리의 예술적 심미안을 키워준다. 이응노 화백의 문자 추상화는 독창적인 미술세계를 창조했다. 전국의 교구본사와 규모있는 사찰에서 달마도 · 선묵화 미술관, 사경 · 변상도(판화) 미술관, 경판 · 불경 박물관, 근대불교서적 도서관, 발우 · 가사 · 불구(佛具)도자기 박물관, 불교공예 예술관 등 전문불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국가 예술계에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되어 불교문화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귀중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이다. 옛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추구해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새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불교계는 이 점을 뼈아프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가을 이사철이다. 며칠 전 아파트 재활용터에 인간무형문화재인 삼락자(三樂子)의 달마도와 전서체로 쓴 '반야심경' 액자가 버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실수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한 것 같다. 사찰에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었다면 이런 귀한 불교작품을 기증하였을 것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는 수집한 예술품을 시정부에 기증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미술관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계의 미술시장, 산업디자인까지 주도하고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산물이다.

社 說

봉은사 땅 환수, 역사 되찾는 불사

조계종이 11월 17일 2014년 현대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일부를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이 언급한 한전 부지는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으로부터 약 10조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1970~1971년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 경내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는 이후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사찰 경내지 매각에 대한 불교계 반대에도 당시 실력자이던 이후락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종단 간부 회의에 참석하고 총무원에 넣은 압박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권력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개입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현대자동차에 부지를 매각했고, 다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삼보정재를 강탈당한 불교계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한전의 토지사용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특히 조계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매각된 토지는 엄연히 봉은사 경내지였다. 위법적, 초법적 행위로 인하여 강탈당한 봉은사 경내지를 찾는 것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이다. 봉은사 토지 환수는 수천년을 지켜온 민족문화유산이 특정인과 정권의 강압에 의해 침탈당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봉은사 경내지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중에서도 불교가 지켜낸 소중한 삼보정재다. 이러한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문화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이는 1700년 한국불교사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 봉은사 경내지 환수를 통해 역사문화 전승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놓기를 기대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속히 개회를

조계종 중앙종회 222차 정기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수차례 유회했고 결국 폐회하면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유회의 원인이 집행부를 향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보이콧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어떤 이유든 중앙종회가 정기회를 속개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의사일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태는 좀처럼 안정되지 못한 채 자동폐회라는 최악의 결과를 빚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발'에 대한 집행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은 어찌보면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 이면에 집행부와 중앙종회 간 소통의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해 그동안 누적됐던 앙금이 있지는 않을까.

중앙종회와 집행부는 종단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종회 파행은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무엇을 위한 파행이었고, 이를 통해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이번 파행의 책임을 안고 소임을 마무리했고, 정청래 의원의 망발을 규탄하는 종단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다. 종회 파행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거칠 만한 가치가 있는, 바람직한 결론인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종회는 이제 임시회를 열고 예산안 등 미뤄둔 안건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됐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회와 집행부가 종단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마음에 새겨진 환자 이야기

위드코로나로 돌아서면서 환자들을 맞이할 생각에 법당을 정리하며 새로 단장을 하게 된다. 물티슈 등의 물품도 헤아리고, 뭐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게 된다. 5년을 넘게 장엄으로 두었던 한 보호자의 선물을 정리하게 됐다. 봉사자들이 버리자고 해도 못 버리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한 환우분의 이야기를 하려한다.

병실을 라운딩할 때 1인실 병실을 들어갈 때는 조심스럽다. 그래도 문을 노크하며 들어선 병실은 마침 임종을 앞둔 불자가 있는 병실이었다. 딸이 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도선사의 신심있는 불자로서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며 사셨던 분"이라고 딸은 몇 번을 강조했다.

환우의 머리맡에는 평생 기도했을 천주염주와 다낡아 너덜너덜한 〈천수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딸은 아침 새벽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어머니의 염불 소리에 눈을 떴다고 한다. 아들과 딸을 낳고 일찍 사별한 남편을 대신해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헌신한 분이었다고



그림 · 최주현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얼마 전 어머니를 보기위해 다녀갔단다. 그때만해도 눈을 맞추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 가고 난 후 마음을 놓으셨는지, 아니면 상심을 해서 그런지 급격히 안 좋아졌다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환자에게 다가가 "보살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환자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무 잎사귀처럼 바짝 마른 환자의 손을 잡았다. "보살님 이제 부처님께 가려고 준비 중이시죠." 환자의 감고있는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 부처님이 보살님 모시러 오실 겁니다. 보살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명호를 마음으로 부르고 계셔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하고 짧은 기도 후 병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른 병동을 돌다가 두어 시간 만에 다시 환우의 병실로 돌아왔다. 환우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 보였다. 나는 환자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보살님 부처님 명호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거죠"하고 말해보았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고 온 힘을 다해 부처님을 부르는 보살님의 간절함이 느껴져 그만 눈물이 터졌다. "보살님, 끝까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환우의 딸과 함께 눈물을 흘려가며 임종 기도를 하며 환자를 배웅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의 명호를 놓지 않으셨던 그 보살의 정진의 힘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